4월 17일 : 한상진, 성혜란, 오수연 보건의료연합 의료진과 함께 이라크 입국
4월 19일~22일 : 임영신, 한상진, 오수연 2차 의료지원 조사작업 진행
4월 21일 : 최혁, 의료진과 함께 이라크 입국, 팀원들 조사작업 계속 진행
4월 26일 : 한겨레 팀과 보건의료연합, 반전평화팀 바그다드내 병원에 의약품 전달
4월 28일 :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진, 알 마시텔 보건소 진료
4월 29일~5월 1일 : 바그다드 내 빈민지역 현황 조사, 유은하 알누르 시각장애인 학교 지원시작
5월 2일 : 이라크 민중지원사업 시작, 쓰레기 수거사업 진행, 민중지원팀 1차 (김하운) 출국
5월 4일 : 뉴바그다드 알까마리아 지역 빈민 지원활동 진행, 한상진, 오수연 바그다드 전역에서 전쟁범죄 조사활동 진행
5월 22일 : 유은하, 최혁 일시 귀국, 현지 한상진, 오수연, 배상현, 김하운 잔류
6월 5일 : 민중지원 2진(최혁, 목지영, 이동화, 이상래) 출국
6월 9일 :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예비 장소 방문
6월 10일~: 공사 시작
6월 14일 : 민중지원 3진(박기범, 성혜란)출국
6월 23일 : 이란계 쿠르드 난민 캠프 알 타쉬캠프 방문, 이주비용지원
6월 26일 : 민중지원 4진(전승로, 오수연, 강인화, 정희영, 이계순, 구철민 장혜진)출국
7월 1일 : 동양의료지원실 운영 시작(알 마시텔, 알 후리야지역)
7월 5일 : 어린이 공간 개관행사 진행, 다음날부터 시설이 운영됨
7월 10일 : 어린이 공간내에서 아이들 부상사고 발생, 운영 중단
7월 12일~ : 보수공사 시작
7월 14일 : 이라크 공산당 주관하는 집회 참석
7월 21일~24일 : 대부분 팀원 이라크 남부도시 바스라 지역으로 민중지원활동전개, 보수공사팀은 바그다드 잔류
7월 29일 : 민중지원팀 공식적인 활동 정리 암만으로 나옴, 박기범, 성혜란, 김하운, 이동화 잔류
8월 10일 :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으로 하고 다시 문을 염, 공사는 계속 진행함
8월 12일 : 성혜란, 박기범 암만으로 나옴
8월 23일~24 : 한국 반전평화팀 마무리행사 진행, 현지 이라크 파트너 살람, 카심 초청되어 행사 참여
8월 30일 : 놀이방 공사 최종 완료, 수영장, 그늘, 잔디 공간, 축구장등을 만듬, 오전은 현지 이라크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 오후에는 인근 어린이들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
9월 2일 : 김하운 암만으로 나옴, 이동화 잔류
9월 14일~11월 : 천주교 평화연대에서 모금한 펀드로 알 하와니트 빈민지역 식량지원활동
9월 25일 :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를 위한 성명서 발표
9월 30일~10월 2일 : 한국군 추가파병 반대 이라크 한국대사관 앞에서 일인 시위 진행
10월 초순 : 한국에서 이라크 시민조사단 준비모임이 시작됨,
10월 18일 : 노무현 정부 추가파병 결정, 시민조사단 계획 철회
10월 30일 : 이라크 조사단(최혁, 김재복, 이강길, 전미선) 출국
11월 6일~10일 : 파병 예상지 북부 모슬시 조사작업

11월 28일 : 이라크 조사단 귀국
12월 12일 : 이동화 귀국, 현지 활동 정리

부록 2.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최초 활동기획안 2003/01/15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IPT)활동기획안

2003년 1월 15일
* 기획안은 변동 가능합니다.

한국이라크평화팀의목적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이라크의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의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전쟁 저지를 위해 현지에서 반전활동을 하는 것을 그 주목적으로 하여 동시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난민 구호 사업과 이라크에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 나간다.

한국이라크평화팀의구성경위

한국 이라크평화팀은 이라크 전쟁 위기설이 고조되어가던 2002년 12월 몇 명의 평화운동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이라크 문제의 연관성에 관해 논의하던 중 이라크 전쟁을 막는데 먼저 힘을 보태자는데 동의하고 1월 초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구체화하였다.

한국이라크평화팀의국제적협력관계

한국 이라크 평화팀은 아직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경험과 역량 등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미국의 Voice in the wilderness(광야의 목소리)라는 평화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라크 평화팀(IPT)의 일원으로 이라크에서 활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쟁 위기시 전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의 평화운동가를 분쟁지역에 파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비폭력 평화대(International Nonviolent Peaceforce)와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이라크평화팀의활동계획

1. 주요 활동 내용

1)전쟁 예방 활동
기존에 이라크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전쟁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 활동은 평화운동가들이 이라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 이라크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2)난민 구호 활동
가능하다면 한국에서의 모금을 통하여 난민 발생시 난민의 대량 유입이 예상되는 요르단과 이라크

국경지역에서 머물며 UN 및 기타 국제 구호단체들과 함께 난민구호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모금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3) 의료 지원 사업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하여 기초적인 의약품의 부족으로 이라크에서의 가벼운 질병으로도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잦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하여 이라크에 의약품 반입이 가능한지 모색하고 있으나,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한방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간단한 도구들을 가지고 가서 한방 의료 지원사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팀원 중 한명이 한의대 재학생이고, 또 건강운동단체에서 간단한 민간 응급요법을 교육받기로 하였음. 또한 만약 의약품 반입이 가능해진다면 보건의료단체에서 의약품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고 소식을 전해옴)

2. 주요 활동 지역

1)바그다드 인근

이라크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라크 인근을 떠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주요 폭력의 목표지점이 바그다드가 될 것이기에 바그다드와 그 인근지역으로 기본적인 활동 구역을 한정한다. 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고 또 이라크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을 때는 바그다드를 떠나서 다른 도시나 시골지역에서도 활동 할 수 있다.

2)이라크와 요르단 국경지역

이라크에 출발 하기 전 혹은 이라크 가는 동중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대규모 이라크 전쟁 난민의 유입이 예상되는 이라크와 요르단의 국경지역에 캠프를 설치하여 난민을 수용하고 또 이라크에서 생활하기 위한 자금과 물품들을 난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한국의 긴급한 모금을 요청한다.

3) 기타 지역

기타 현지의 상황 변동에 따라 필요할 경우 팀을 두 개 이상으로 나눠서 두 개 이상의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3. 소요 예산

2) 예산 마련 방안

현재 독지가의 도움으로 천만원 가량이 확보된 상황이나 그 이외에는 한국 사회의 모금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최악의 경우 경비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고 또 여타 의료 활동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이라크에서 두달동안 호텔에서만 머물다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 현지 상황

1)UN의 보고서에 의하면 250만 이라크 인구 중 약 2%인 50여 만명이 전쟁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의 미비로 현지인들이 이미 수십만 명이 죽었으며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운동가 중에도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미 발생하였다.

2) UN의 제재로 인해 기초적인 의약품과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UN의 제재

그리고 후세인의 폭압정치는 이라크 민중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미국과 후세인 정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힘 겨루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의 이라크 전쟁 위험을 막은 후에는 국제적인 이라크 민주화운동 지지를 조직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이라크 현지에는 한국의 교민들과 대사관이 철수한 상황이어서 만약의 사태 발생시 요르단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이라크 담당 서기관만이 유일한 비상연락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되 한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 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1) 예방 가능한 질병의 예방 조처(예방주사등)를 취한 다음 여행자 보험에 필히 가입할 것
2) 가족에게는 필히 이라크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떠날 것, 그리고 비상연락망에는 가족들의 연락처가 꼭 명기되도록 할 것
3) 한방진료를 위한 기초 교육을 모든 참가자들이 받고 갈 것
4)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개인 짐을 최소할 것
5) 돈과 여권 등을 따로 소지할 수 있는 복대 등의 안전 장구를 필히 준비할 것
6) 이라크 현지에서는 매일 활동 기록을 꼭 작성하여 남길 것
7) 이라크 사람들과 종교적 혹은 인종적 이유로 인한 어떠한 분쟁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8) 종교가 있는 사람은 동료들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 할 것
9) 물이 부족한 국가이므로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생활을 위한 여행 준비를 할 것

부록 3. IPT 로의 초대

Call for Iraq Peace Team

We are an ineternational team working to prevent an escalation of the current war against Iraq. We oppose any form of armed aggression by any party. We know that a new war against Iraq will take its greatest toll, both immediately and for years to come, on Iraqi civillians: the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poor. there is no outcome which would justify theis further tragedy for the people.

We invite any who wish to act for peace and for victims of this possible war to consider joining us. Our intention is to form affinity groups, eights to ten persons in each. These groups will prepare themselves at home for working together, both in iraq and upon return. Each traveler will represent a much broader network of supporters from their own locales.

When and if it appears that war against Iraq in at hand, we will go to Iraq with these intentions :

We will live among the iraqi people.

We will be with the Iraqi people during any aggression directed at them, including continued economic sanctions.

We will use presence and non-violent actions to protect, if we can, both the civillian population of Iraq and those facilities (e.g, water purification plants) which make daily life possible for the Iraqi people.

We will use our experiences to speak truthfully, from Iraq and through supporters in the U.S., to all who will listen about the effects of sanctions and war on the people of Iraq.
We as a team do not take the side of any government, none of whom we consider blameless, and all of whom ask to initiate dialogue and negotiation, especially under the auspices of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s peace-minded people, we deplore all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ose inherent in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on the Iraqi people for more than eleven years.
We call for the present crisis to be resolved without further violence. To this end, we urge all parties to listen to the advice of Denis Halliday, Hans von Sponeck and others who have immediate experience of iraq and years of labor for the United Nations. We pledge our continued efforts to rebuild open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between the Iraqi people and the rest of the world.
Many of us have spent years working to end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q and have visited those in iraq most affected by the sanctions. We have seen the grievous and enduring results of the 1991 war and the bombing by the U.S. and the U.K. that has continued since then. We have visited the hospitals and schools in many areas of iraq. At home, we have done what we can to end the embargo and to advocate the beginning of disarmament throughout the entire region.
The Iraq Peace Team will be independent from an government or organization. We look for support from other persons who share our convictions and who attach no political considerations to such support.
Individuals are invited to submit applications to voice in the wilderness. Total commitment to nonviolent principles and practice is essential for participation in the iraq peace team. Prior experience living in tense and potentially violent situations will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All must be prepared to go to iraq for an extended stay and to arrange for all their own expenses.
Those accepted for the IPT will received help in forming affinity groups (based, for example, on past experiences working together, or on a shared faith or shared project).
Prospective participants may choose an extended stay or a short-term stay in iraq. See our join section.

Iraq Peace Team / Voice in the Wilderness 1460 West Carmen Avenue Chicago, IL 60640
Tel : (773) 784-8065 Fax : (773) 784-8837 I E-mail : info@vitw.org

부록 4.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설립 계획서 2003/02/05

'(가)한국 이라크 평화팀(IPT) 지원 연대' 계획

1. 명칭

'한국 이라크 평화팀(IPT) 지원 연대'라 합니다. 처음 '이라크평화팀 지원사업단'이란 이름이 구상되었는데, 여러 단체가 연대

해 지원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이후 국내 반전활동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지원 연대'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 위상

1) 지원연대는 이라크평화팀을 지지하며, 이라크평화팀의 반전활동, 난민구호활동, 의료지원활동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시적 연대기구입니다.

2) 지원연대는 이라크평화팀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반전운동에 이바지하고, 국내 반전평화운동의 전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이라크평화팀과 연계해 다양한 반전활동을 모색하는 연대기구입니다.

3. 운영

(1) 정기회의
소속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지원연대 운영에 대해 논의합니다. 각 단체별 활동 공유, 지원연대 활동 보고, 이후 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최소한 1주일에 한번 이상 정기회의를 가집니다.

2) 사무국
지원연대의 구체적인 활동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단위입니다. 정기회의에서 논의·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하고 제반의 사무업무를 책임집니다.
- 사무실 설치/공식 이메일과 전화

4. 활동 계획

■ 한국 이라크평화팀 출국 기자회견

(1) 일시 장소
출국일 출국 1시간 전 인천국제공항

(2) 진행
- 사회자 :
- 기자회견문 발표 :
- 각 참가자 발언
- 지원연대 계획(또는 지지성명) 발표 :
- 질의 응답

(3) 기자회견자료
- 기자회견문
- 참가자 결의서
- 지원연대 계획서 또는 지지성명(짧게 종합하여)

(4) 준비
- 기자섭외/기자회견자료/플랭카드/책상/의자/엠프(전원내장)/마이크
- 취재요청은 사전에 접촉이 있었던 언론사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5) 2진 출국 기자회견 또는 환송
다시 기자회견의 필요성 여부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환송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라크평화팀의 반전활동·난민구호활동·의료지원활동을 위한 모금

현재 이라크평화팀이 필요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라크평화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난민구호활동이나 의료지원활동에 최대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모두 14명이 준비하고 있으며 1인 기준 300만원씩 책정한다면, 필요한 재정이 총 4200만원입니다. 이 재정은 전적으로 모금을 통해 마련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참가자의 소속단체, 사회단체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참가자 개인 부담도 염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원연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지원연대 소속단체 모금 : 국제민주연대, 대학생신문사, 민족21, 비폭력평화연대, 사회당, 시민의 신문사, 여성해방연대, 인천시민연대, 전학협, 한겨레신문사, 환경련
- 후원모금 : 홈페이지(시민의 신문)
- 재정사업 : 옷이나 팩 판매
- 의료물품 구입 : 보건의료단체와 적십자 등과 접촉, 한방재료 구입 등
- 사회단체 : 공동실천 소속 단체, 민주노동당, 개혁국민정당, 국회의원, 종교단체, 평화단체, 언론사 등
- 거리모금 : 전학협 등

■ 이라크평화팀 2진·3진 모집 활동

지원연대 차원에서 이후 이라크평화팀 참가자 모집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2진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참가자를 중심으로 15일 이전에 출국하고, 3진은 2월 말에 출국하는 것을 목표로 모집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진 출국 후 인터넷 등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모집활동을 진행하고, 지원연대가 수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집 활동을 지원연대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재정문제, 추후 책임문제 등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3진이 출국할 즈음에는 개전이 임박해져 있을 것이기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단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단체가 전반적인 후속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원연대는 지원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소속 단체가 모집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지원연대의 취지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 출국일 공개 모집활동 시작(IPT활동 소개와 의의/현재 한국 IPT 상황/2진·3진 공개 모집 홍보/문의)
- 2진 출국 후 3진 공개 모집
- 3진 출국(2월 말)

■ 여론확산 활동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와 언론사와의 연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라크평화팀의 활동을 소개하고 온라인 후원모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로 기본적인 여론확산 활동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취재를 하는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자체 여론확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연대 차원에서 인터넷 홍보, 선전물 홍보, 거리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여러 언론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여론확산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기본적인 홍보(인터넷, 소식지, 유인물, 당보 등)을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 시민의 신문
- 언론 : 대학생신문, 민족21, 시민의 신문, 한겨레 등(사전 사진촬영 및 인터뷰-소속단체 차원에서도 별도로 진행)
- 언론단체 연계
- 이라크평화팀 모집 홍보/모금 홍보와 함께 진행
- 옷/팩/선전물/
- 통신 홍보
- 캠페인 및 1인 시위
- 이라크평화팀에게 편지쓰기 운동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차원에서의 활동

공동실천 차원에서 지원연대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실천 소속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모금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동실천에서 이라크평화팀 또는 지원연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도록 노력합니다. 2월 15일 집회 이후 공동실천 차원에서 '이라크전 한국정부 파병 저지'를 위한 활동으로 나아가는 등의 모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동실천에서의 모금운동/여론확산 운동
- 2월 15일 집회 참여 및 활동
- 이라크전 한국정부 파병 거부 연서활동/서명운동

■ 1진 귀국자와 함께하는 활동
- 난민구호를 위한 모금
- 여론확산 활동
- 반전 캠페인

5. 기타

1) 이라크평화팀과 지원연대 간의 연계
2) 모금 수렴 및 송금
3) 후원요청 상황 및 주요 후원조직화 단체
4) 다음 회의

부록 5.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이라크 입국 기자회견문과 현지 활동계획서2003/02/27

이라크 입국 기자 회견문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11명은 평화와 인간애의 이름으로 이라크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 오늘 저녁, 이라크 국경을 넘을 것이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이려는 전쟁은 이제껏 미국이 대중선동용으로 떠들어왔던 '테러와의 전쟁' 도 아니며, 독재 정권 하의 이라크를 민주화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과도 거리가 멀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땅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를 독점하기 위한 추악한 전면전이며, 에너지 자원을 좌지우지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의 유일무이한 패권국으로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야욕일 뿐이다.

이러한 부당하고 오만한 전쟁이 초래할 결과는 실로 처참할 것이다. 이미 걸프전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폭격과 경제제재로 인해 이라크의 기간산업은 정상적인 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었으며 5세 이하의 어린이 50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 기초의약품의 절대 부족으로 20세기 초에나 유행했을 질병이 창궐하고 있으며, 더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라크 민중들이 이미 절망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과 용기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라크 민중들을 향해 또다시 미국이 전쟁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분명컨대 인간에 대한 대량 학살이며 평화와 인간애를 지향하는 전세계 모든 민중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듯 한 가닥의 명분도 없는 이라크 전쟁을 우리는 먼 자국 땅에서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더 낫다는 실로 당연한 이상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자리에 모인 11명은 평화운동가에서부터, 사회주의자, 여성운동가, 학생, 신부님, 동화작가, 기자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우리들은 바로 우리와 같이 사랑과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의 반전,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이라크 민중들과의 뜨거운 연대 의지로 이 오만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라크로 향한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통해 근대적 이성의 처참한 파괴를 목도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랑과 평화의 마음이 전쟁의 문법으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절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이라크 반전 평화팀의 활동은 국내의 반전, 평화운동이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큰 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점증하는 한반도에서의 파국적 전쟁을 막는 길이라 믿는다. 현재 한국에서도 반전과 평화의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반전 평화의 열기로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 정부의 파병 시도를 저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급히 확립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몇 십여년의 역사를 가진 서구의 반전운동과는 달리 이제 한국에서는 반전, 평화운동이 겨우 형태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러한 시도는 한번의 참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11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반전평화팀이 평화와 인류애에 대한 신념을 지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로서, 앞으로는 팔레스타인 등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에 적극 개입하여 평화의 이상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대규모로 살상하는 전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과 군대, 군사주의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평화적인 세계를 만드는 길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03년 2월 27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일동

(김력균, 박기범, 성혜란, 오김숙이, 은국, 이윤벽, 임종진, 전승로, 최혁, 허혜경, 한상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IRAQ PEEACE TEAM OF KOREA) 활동 계획서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구성배경

▷ 미국 부시 행정부와 영국 블레어 정권이 준비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은 테러방지, 화학무기 등 대량 인명 살상 무기 확산 저지, 이라크 민주화 등의 표면적 이유들과 전혀 상관없이 이라크에 매장된

석유 자원을 노리는 부당한 전쟁이다.

▷ 이라크에서 부당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린이들을 비롯한 수백만 이라크 민중이 무고하게 살상되는 참극이 빚어질 것이며, 그 결과로 이어지는 테러 보복과 응징이라는 악순환으로 세계는 야만의 시대로 치닫게 될 것이다.

▷ 미국 부시 행정부와 영국 블레어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의 추악한 본질을 규탄하는 반전운동이 여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전개 되고 있으며, 부당한 이라크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가들의 이라크 행이 이어지고 있다.

▷ 이라크 전쟁은 한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한국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민족의 비극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백만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인류애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 또한 부당한 이라크 전쟁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듯이 한반도 민중의 삶과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라크 전쟁은 한반도에서의 언제든지 부당하고 비참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저지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부당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활동을 넘어서 이라크 현지에서 반전평화활동을 전개하고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을 구성하였다.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기조

▷ 각계각층 인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한국 최초의 반전평화팀으로써 향후 한국 사회에서 반전평화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이라는 독자성을 유지하며 활동한다.

▷ 임박한 이라크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부시행정부와 영국 블레어 정권이 주도하는 전쟁 책동을 고발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반전 평화캠페인을 이라크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으로써 임박한 이라크 전쟁을 저지하는 반전평화활동 뿐만아니라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전쟁 위기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부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부당한 이라크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이라크 현지에서의 반전평화활동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함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이라크 현지에서의 반전평화활동 과정에서 아무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체계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대외적 공식성을 확보하고 이라크 현지 등에서의 반전평화활동을 효율

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표 및 집행 체계를 구성한다.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진로 및 사업 등 중요한 사안에 관한 의사는 반전평화팀 구성원 모두가 참가하는 회의(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 등을 고려하여 반전평화팀의 주요 회의결과와 활동내용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체계와 구성원
- 공동대표 : 오김숙이, 한상진
- 이윤벽, 허혜경, 박기범, 임종진, 성혜란, 은국, 전승로, 김역균, 최혁

□ 향후 활동 계획

부당한 이라크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이라크 현지에서의 반전평화활동을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눠서 전개한다. 시기별 활동 계획은 추후 상황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 반전 평화 캠페인
- 집회, 1인시위, 고공 시위 등 다양한 반전평화행동을 실행한다.
- 이후 구체적인 기획과 함께 필요한 시위 물품을 지원연대에 요청한다.
- 대사관 등의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알아본다.

▷ 현지 봉사활동
- 전쟁고아, 핵무기,방사능에 의한 피해 민간인 방문과 봉사활동
- 방사능에 오염된 현지 일반인들의 피해 상태 및 규모 파악
- 이라크 민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림 전시회, 이라크 여성들에게 보내는 엽서 전시등

▷ 외국 반전평화단체와의 연대 활동
-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단체들과 간담회, 연대행동등을 모색
- 한반도 전쟁 방지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 국내와의 연계
- 한국 내 여론 형성을 위해 팀의 활동소식, 이라크의 실상을 수시로 전달한다.
- 한국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한다.
- 국내에서 반전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난민 구호 활동 준비
- 요르단 국경지역에 설치될 난민캠프에서의 활동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 팔레스타인 난민활동 등을 고려할 때 의류, 방한복, 담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교계, 인권단체 등을 통한 한국 내 지원사업을 제안한다.
- 국내 보건의료단체 등을 통해 의료지원단에 대한 준비를 모색한다.
- 난민 캠프의 현황 파악과 국내이 NGO 단체들과 접촉한다.

부록 6. 미국의 개전(開戰)에 따른 반전평화팀 반대 성명서 2003/03/20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성명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침략이 시작된 이 순간에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당장 침략을 중단하고 철수하라. 미국의 경제적 야욕 이외에 어떤 명분도 없는 이번 무력 행사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며, 최첨단 전자 무기에 무력하게 노출된 대상은 후세인이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이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세계 민중에 대한 강대국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세계적 연대를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한다.
우리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이라크의 반전운동에 동참하면서 평화를 원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호전적이고 과격한 집단이라는 서구의 편견과는 달리 그들은 경건하고 친절한 문화인들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도 피할 방도가 없다.
우리는 왜 그들이 기름과 함께 피를 미국에 바쳐야하느냐고 묻고 싶다. 미국의 침략은 폭격과 지상전을 통한 직접적인 폭력이다. 그리고 12년 간의 경제 제재로 피폐해진 이라크 경제를 말살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이라크 민중들을 살해할 것이다. 미국의 침략은 이라크의 민주화를 심각하게 지체시키고 이라크 역사의 암울한 시기를 연장시킬 것이다. 이라크는 미국의 넘쳐나는 군사 무기를 쏟아부을 빈 땅이 아니라 고유의 전통과 자존심을 가진 이라크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민주화를 이라크 민중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의 혐오스러운 무기와 함께 자기들의 땅으로 신속히 돌아가야 한다.

1.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에 반대한다. 미국은 전 세계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 침공을 당장 중단하고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라!

1. 우리는 파병 등 한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 지원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인 미국의 침략에 가담함으로써 역사에 치욕을 남겨서는 안된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희생자는 한반도가 될 수도 있음을 한국 정부는 직시하라.

1. 우리는 이라크의 비군사시설과 민간인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반대한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배상현, 한상진, 유은하를 비롯한 세계 평화 운동가들이 들어가 있는 다섯 곳은 명백한 민간시설이다. 배상현, 한상진, 유은하 씨는 이라크 민중들과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전쟁이 터진 이 순간에도 이라크에 남아있음을 밝힌다.

이라크 민중들은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라크 민중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3월 20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일동

부록 7. 미국 개전에 따른 반전평화팀 지원연대의 성명서 2003/03/20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성명서>

미국은 이 잔혹한 학살을 중단하라

인류는 결코 오늘의 야만적 침략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결국 세계적 차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짓밟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끝내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UN 안보리의 결정도 거치지 않았다. 오늘의 군사 행동은 힘을 앞세워 질서를 파괴하고 약자를 짓밟는 강자의 논리이며 결과적으로 역사를 야만의 시대로 후퇴시켰다.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의 양심은 결코 학살에 불과한 군사적 폭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더욱 거센 반전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역사적 범죄자로 남을 것이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세 명은 끝까지 이라크에 남기로 하였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팀장 한상진 씨를 비롯한 팀원 세 명은 개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남았다. 이들은 고아원을 비롯한 민간 시설에서 이라크의 평범한 민중들과 고통 및 위험을 함께 하며 끝까지 이 전쟁의 증언자로 남을 것을 결심하였다. 지원연대는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전쟁지지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전쟁지지 결정을 취소하라.

한국 정부의 전쟁 지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지원연대 또한 수 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결코 명분 없는 학살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지원연대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의 지지 결정을 취소하고, 국회 비준 저지 운동 등을 통해 파병을 막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난민 구호 사업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쟁 상태로 돌입한 이라크의 이웃 나라 요르단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난민 구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연대는 난민 구호 사업에 참가하려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활동에 대해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다. 특히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구호를 위해 국내의 종교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지원연대는 향후 종합적인 국내 난민 구호 활동을 위해 범국민적인 연대 운동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반전운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인 반전 운동이 전쟁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야만적인 전쟁을 규탄하는 반전운동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지원연대는 앞으로 현지 반전평화팀과 긴밀히 연계하고, 매일 미 대사관 앞 일 인 시위와 마로니에 공원 촛불시위 등을 벌이며 더욱 더 강도높게 반전 행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지원연대는 파병을 막기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전쟁 중단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2003년 3월 20일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부록 8. 전쟁에 대한 기록, 증언 - 배상현 2003/03/29

2003년 미국의 바그다드 공격에 관한 전쟁범죄 및 관련 정보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이라크 평화팀(IPT)의 보고서

(참고: 이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병력에 의한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시설물들의 파괴에 관한 현재로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의 사건 순으로 구성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는 서두의 "최근보고"란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들의 사진이 이 보고서에 첨부되어있는 경우에는 별표로 표시하였다.)

참고 : 사진은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홈페이지 참조(iraqpeace.ngotimes.net)

최근 보고

알 야목 종합병원 - 3월 26일

3월 26일에 캐시 브린(Cathy Breen)과 일행들이 알 야목 종합병원의 다음 피해자들을 방문하였다.
7살 소년인 아마르(Amar)* 는 여러개의 폭발물 파편들을 맞고 출혈과다로 가슴에 응급 튜브를 꽂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인 한나(Hannah)는 이날 아침 그 집에 미사일이 떨어져 죽었다. 그는 바그다드의 농촌에서 왔다.
농부의 아들인 8살 소년 무엔(Mueen)*은 복부 부상으로 인해 배액관을 꽂고 있었다. 의사는 수술로 꺼낸 모든 작은 파편조각들을 일행들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폭발로 인해 죽었다. 그의 6살난 동생 알리(Ali)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10살 소년 루셀(Rusel)*은 그녀의 방문 밖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부상당했다. 일행은 X 레이를 통해서 그녀의 가슴에 박혀있는 파편을 볼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가슴에 튜브를 꽂고 있었다.

알 야목 종합병원 - 3월 24일

3월 24일 캐시 브린과 일행이 알 야목 종합병원의 다음 피해자들을 방문하였다.
14살 중학생인 나다 아드난(Nada Adnan)*은 앞머리 부분에 깊은 상처와 골절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다. 그녀의 허벅지 부위에도 커다란 파편이 박혀있었다. 우리 일행 중 일부는 그녀와 그 가족들이 병원으로 올 때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다. 미사일은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녀의 아저씨 집위로 떨어졌고, 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다의 8살난 자매는 그때 죽었다. 초로의 여성 파티마는 폭격이 있을 때 두려워 했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 그녀는 이미 엉덩이 수술을 받은 후였다. 그녀는 발목에 깁스를 했고 무릎에도 부상을 당했었다.

압둘라 하마드 하싸리(Abdullah Hamad Hassarri) 가족
3월 27일, 바그다드 북쪽 주거지역인 알 투자르(Al Tujjaar)에 있는 압둘라 하마드 하싸리 가족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들 집의 바로 옆에 발쿠이스(Balquis) 여중학교의 창문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일행들을 보았다. 하싸리가족의 집에서 일행은 작고 균일한 입방체의 금속 조각들이 벽에 박혀서 만들어낸 수백개의 흔적들과 함께 안마당에 떨어져 있는 2층의 지붕 조각들을 우리 일행은 발견할 수 있었다. 위층에는 피에젖은 커다란 메트가 있었다.
가족들은25살의 모니드(Moneed)와 23살난 그의 부인 사하르(Sahar)그리고 그들의 6살난 아들 키세르 무흐웹(Quiser Muhweb)은 폭탄으로부터 금속조각들이 창문을 통해 날아올 때 그 메트에 함께 앉아

있었다. 이 조각들은 창문 유리들을 파괴하고 어머니와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는 등 그들 모두에게 부상을 입혔다.
많은수의 파편들이 위에서 아래까지 벽에 흔적을 남겼지만 정원과 안마당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건물 아래층에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파편 폭탄은 집 지붕의 2~3미터 상공에서 폭발하여 문을 통해 날아들어와서 3명의 부상자를 만들어 내고 바로 옆에있는 학교의 창문을 깨뜨린 것으로 보인다.

추가 보고

알 샤압(Al Shaab) 상업지역
두개의 폭탄이 3월 26일 정오경에 무역성 쇼핑센터 세블럭 정도 뒤편에있는 바그다드의 알 샤압지역의 간선도로 주위의 상업지역의 한 복판에 떨어졌다.(세개의 폭탄이 떨어졌다고도 함) 이 두개의 폭발의 결과 깊이 1미터, 직
경 1.5미터 정도의 작은 분화구가 교차로 근처의 길 양쪽에 만들어졌다. 비록 분화구는 작았지만, 폭탄은 매우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도록 고안되었다.
강력한 폭발로 인해 약 15대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대부분의 금속제품들이 뒤틀리고 불에 탔다. 일행은 파괴된 가게 앞에서 뒤틀린 금속제품들과 길을 따라서 널부러져있는 차들 그리고 두블럭에 걸친 불에 탄 집들을 보았다. 에드 키네인(Ed Kinane)은 타이어가 산산조각난 두 대의 차를 발견하였다. 가게를 따라있는 대부분의 가게들의 파손 정도는 안팎으로 다양했다. 실제로 위 아래층을 막론하고 처음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창문은 하나도 없었다.
한쪽 모퉁이에 있는 자동차 수리점과 길건너의 코너에 있는 레스토랑과 같은 일부 가게들은 난장판인채로 남겨져 있었다.
시멘트 조각들이 식당 바닥과 밖의 식사할 수 있는 지역들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시멘트 설비들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식당안쪽은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다.
식당에서부터 약 7개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있었고, 그 마지막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다. 무하마드(Muhammed, 36)와 아트만(Atman, 30)은 공격이 있었을 때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던 두 형제들이다. 그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 모두 민간인들인 9명이 그때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파편조각들로 인해 몇 개의 구멍이 뚫린 벽을 가리키면서 다른 형제인 사둔 무크신(Sadoon Mucksin, 40)이 왼쪽팔에 부상을 당했고 알 누마안(Al Numaan)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말했다. 그들은 카페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5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폭발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웃에 사는 건축기사인 살라 미에드(Sala Myeed)는 임신한 여성인 움 주아나(Um Juana)가 그녀의 2층 아파트에서 불에 타 죽었다고 말했다. 거리를 따라서 다음 블록에 살고있는 의대생인 마르완 나스웨르(Marwwan Nasweer)는 전기제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두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다. 길거리에서 만난 다른 사람은 식당에서 일하던 5살난 아이의 아버지인 아부 하싼(Abu Hassan, 45)과 마니킷 하모우드(Manikit Hamoud, 17) 그리고 살리아 노우리(Saliah Nouri, 28) 세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36살의 사리프 알바리(Sarif Albari)와 그의 11살난 아들 사페(Safe)가 자동차 수리점에서 죽었고 17살의 사파 이싼(Safa Issan) 12살인 마르완(Marwan), 그리고 운전중이던 그들의 아버지 이렇게 세 사람은 자동차 안에서 죽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피해자는 모두 민간인들로 손님이거나 상인, 보행자 혹은 상가 위층에 사는 주민들 등 모두 최소한 15명이 죽었고 50명이 부상당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

쿨라입(Kulaib) 가족

3월 26일, 몇 명의 IPT 회원들이 바그다드 북쪽에서 온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알 야목(Al Yarmook) 대학병원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에는 일본의 유명한 사진가인 타카시 모리주미(Takashi Morizumi)를 포함한 사진가와 비디오 기사등 국제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에게 방문을 허용한 병원은 많은 방들이 피해자들로 가득차 있었다.
첫 번째 방에서 의사가 이야기한 한 소년에게 일행의 관심은 집중되었다. 그는 수많은 부상을 입었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다른 침대에는 침대의 한쪽 편에 부상당한 5살 소녀 두하(Duha)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다른편은 그녀의 할머니의 침대였으며 겁에질린 소녀는 어머니를 찾으면서 울고 있었다. 그녀와 다른 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통역을 하는 의사의 이름은 자멜 알 바티(Dr. Jameel Al Bati)였다. 그녀의 아버지 수하일 쿨라이브(Suhail Kulaib)와 할머니 아브다(Abda)는 치료를 받으러갔지만, 대화를 약속했다. 딸은 거미줄 같은 부상을 입었고 왼쪽다리가 마비되어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녀의 가족들에 의하면 두하는 미국의 공격이 시작된 첫날인 3월 20일 새벽 5시쯤에 부상을 당했다. 이 대가족은 바그다드 외곽의 시골지역에있는 그들의 작은 집에서 모두 함께 모여있었다. 처음의 폭격과 크루즈 미사일 공격이 막 시작되었다: 명백하게 빗나간 폭탄이나 미사일이 그들의 집 근처에서 폭발하였다. 그들의 집 근처에서 일어난 폭발은 일곱 가족들의 살점들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28살인 두하의 어머니 함다 압달라(Hamda Abdallah)는 그 순간에 두하의 한살난 여동생 하우라 수하일(Hawra Suhail)을 돌보고 있었다.
실제로 함다는 날아드는 파편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팔로 하우라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래서 두하의 갓난 동생 하우라는 등쪽에 약간의 상처만 입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했던것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함다는 살았지만, 하우라의 조그맣고 순결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잃었다. 함다는 그녀의 손과 팔에 파편조각들로 인한 더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팔과 다리에 폭탄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두하의 세살난 남동생 무스타파 수하일, 폭발로 다리에 부상을 당한 16살난 두하의 이모, 팔이 부러지고 상처를 입은 17살난 다른 이모, 그리고 엉덩이와 넙적다리에 파편조각이 박힌 60살인 두하의 다른 할머니인 나드와 오가이드(Nadwa Ogaid)를 포함한 7명 중 추가로 4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

알 카디시에(Al Qadisiyeh) 주거지역
3월 26일, IPT 일행은 바그다드의 알 야목 병원 근처에있는 알 카디시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였다. 26번 거리의 602 모할라(Mohalla-지구)에 인접한 일곱채의 이층집들(#6, 8, 10/1 과 10/2)은 일요일 저녁 7쯤에 지구의 한 복판에 폭탄이 충돌하여 그 지점에 깊이 약 8미터 직격 40미터의 커다란 분화구가 만들어졌고 네 채의 집들이 평평해 졌다. 대부분의 집들은 비어있었고, 단지 두명의 사람들만이 부상을 당했다. "나는 폭탄이 떨어질 그 당시에 밖에 있었고, 이웃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 주위를 돌아갔고 뒤편에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굉음만을 들을 수 있었고 잠시 후 벽돌들이 날아오고 먼지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네 차례나 일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여동생은. 이웃들이 도우러 달려나왔습니다. 이것은 악몽같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기적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약간의 부상만을 당했고 나의 여동생은 멀쩡했습니다."라고 알 야목 병원의 침대에서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서 있는 28살의 아호마드 아벨 다아옘(Ahmad Abel-Daayem)이 말했다. "내가 어머니와 동생은 보고난 다음에야 내 오른쪽 다리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깊게 베였더군요."라고 그는 덧붙였다.

나에미(Naeemi) 가족의 집

3월 25일, 조네드 제로부칸(Jooneed Jeeroburkhan)을 포함한 몇몇 IPT 회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바그다드 동부의 알 카드라(Al Khadra)지역에 있는 나에미 가족의 2층 벽돌집을 방문하였다. 그 집은 미국의 지속적인 폭격이 계속되던 세 번째 날인 토요일 저녁 7시 30분쯤 폭탄에 맞았다. 폭탄은 집의 왼쪽편에 맞았고, 아이들 방의 벽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았다. 두 아이들은 7살과 9살난 형제이다. 그 방의 바닥은 움푹 꺼져있었다. 단지 콘크리트 속에 박혀있던 철근들 일부만이 방 아래쪽에 걸쳐져 있었다. 벽돌들과 깨진 조각들이 채소밭을 뒤덮고 인근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두그루의 바나나 나무가 폭발로 잘려나갔다. 집앞에 주차되어있던 빨간색 차의 바람막이 창이 산산조각나 있었다. 집 안에는 화분에 심어진 식물이 콘크리트 계단위에 아직도 놓여있었다. 하지만 부서진 방에서 나온 책들과 장난감들은 계단 위쪽의 모퉁이에 함께 쌓여있었다. 부서진 나무 침대와 다른 가구들은 부서진 조각들 특히 흩어져있는 유리조각들을 치우기위한 목적으로 집 앞에 놓여있었다.

인접한 그의 집에 커다란 금이 가서 고생을 하고있는 사미르 마호무드 아호마드*(Samir Mahmood Ahmad, 60)에 의하면 폭탄이 떨어질 때 그의 가족들과 나에미의 가족들 약 15명 모두는 다른 방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호마드 부인과 나에미 부인은 자매이다. "우리 모두는 문을 통해서 뛰쳐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애들은 조그마한 소리에도 겁을 먹습니다. 나의 처남은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도록 친척집에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사미르는 말했다.

폭탄의 파편들은 이미 군 보안요원에 의해서 치워진 상태였다. "만약 그것들이 방사능 물질을 포함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증인들은 말했다.

나흐라완(Hahrawaan) 농가

3월 25일, 조네드 제로부칸을 포함한 몇 명의 IPT 회원들이 바그다드 북동지역의 디얄라(Diyala) 다리 인근 나흐라완 지역의 농가를 방문하였다. 농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지 5일째인 월요일 오후 4시 5분경 불시에 폭격을 당했다. 현장에서 세명이 죽었다. 그중 한명은 8살난 소녀로 이름은 파테하 가지(Fatheha Ghazzi)이고, 갓 결혼한 16살의 신부 나다 압달라(Nada Abdallah)와 집의 안주인의 동생인 20살의 여성도 있었다.

8명이 깨진 유리조각과 파편 그리고 날아든 벽돌조각들에의해 8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들이 병원에 실려올 때 바그다드의 알 킨디(Al Kindi) 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IPT의 에이프릴 헐레이(Dr. April Hurley)박사에 의하면, 그들은 머리와 팔, 다리, 가슴, 허리 등이 심하게 찢어져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 대한 사실들을 수집하기위해 화요일에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들을 방문하였다. "20대 후반의 젊은 신랑은 그의 부상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젊은 부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고 헐레이 박사는 말했다. "어린 소년인 아메르(Amer)는 부상을 당했지만 그는 완쾌될 것이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화요일 그 장소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몰려들었던 이웃들에 의하면 그 집은 도시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서 약간의 휴식을 위해 오는 사람들인 두 바그다드 가족들에게 집을 제공한 농부인 아즈미 압둘라 아호마드(Ajmi Abdullah Ahmad)의 소유라고 했다. 그들 중 하나는 그들의 신혼여행으로 이곳을 찾은 새롭게 결혼한 부부였다. 농부의 17살난 아들인 아호마드 아즈미는 유일하게 폭발에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탈출하였다.

그는 폭탄이 떨어질 때 집 주위를 높게 둘러싸고 있는 들판에서 먼지 투성이 길을 통해서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것은 오후 4시 5분이었고, 모두가 오후 중간기도를 한 후 모두가 1층에 있는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폭발음을 들었고, 돌아섰으며 꼭대기 층에서 먼지구름

이 피어오르면서 날아오르는 파편과 부서진 건물조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아직도 그때의 경험으로부터 동요하면서 그는 말했다.

이웃인 카흐타안 하싼 살마안*(Kahtaan Hassan Salmaan)은 불시의 폭격을 퍼붓는 미국의 비행기를 아마도 이라크의 대공 무기들이 맞췄을 것이다고 했다. "다른 비행기가 처음에 날아와서 3개의 폭탄을 떨어뜨렸고 그중 하나가 집에 명중을 했으며 다른 두개는 멀리 떨어진 들판에 떨어졌다." 고 그는 말했다. 무너진 집 옆의 튼튼한 지붕 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묶여있던 소가 죽었다.
집에서부터 그들을 알 킨디 병원으로 실고갔던 차가있던 장소 앞에 차가 주차되었던 곳까지 피해자의 피가 말른 흔적이 연결되어 있었다. 주검을 실어나르기위해 만든 나무 관들이 소형트럭의 핏방울이 굳어진 뒤칸에 아직도 실려있었다.
폭탄의 파편들은 이미 군 보안요원들에 의해 수거된 상태였다. 양쪽의 증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것들이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점에서는 안에 VOLEX라고 적혀있는 구멍이 뚫린 사각형 알루미늄 박스가 발견되었다.

카라다트 미르얌(Karadat Miryam) 주상 복합 지역
3월 24일, 몇 명의 IPT 회원들이 최근에 폭격을 당한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 지점은 지상층에는 상업적 가게들이 있고 위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삼,사층 건물들이 있는 카라다트 미르얌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근처에 어떤 군이나 정부 시설물도 없었다. 이 건물의 창을 덮고 있던 거의 모든 창문들과 창틀들과 철제 대문들이 모든 층에서 못쓰게 되었다. 이 광대한 피해의 결과를 불러온 거대한 폭발은 최소한 약간의 피해자가 있었을
것이다.

하디 알 카드라(Hady Al-Khadra) 2층집
3월 24일, IPT 회원들은 미사일에 피해를 당한 집을 방문하였다. 그 집은 하디 알 카드라 지역에 있는 2층 집이었다. 폭탄은 지붕을 통과해서 들어왔고 2층에 있는 침실로 보이는 방 바닥에 떨어졌다. 거기에는 몇몇 여성 가수들의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이 벽에 걸려있었다. 일행들은 공격이 있었던 당시에 집에 있었던 가족들은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그들은 현재는 다른 가족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집주인의 형제는 우리에게 아랍어로 이야기를 해줬고 우리는 녹음해서 나중에 번역하였다. 그는 폭탄이 3월 22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쯤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있거나 저녁 준비를 하고있을 때 떨어졌다고 했다. 당시 집에 8명이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

알 야목(Al Yarmouk) 병원, 3월 23일
3월 23일, 덕 존슨(Doug Johnson), 로버트 투르콧(Tobert Turcotte) 그리고 주니드 제로부칸(Jooneed Jeerburkhan)을 포함한 몇 명의 IPT 회원들이 알 야목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라크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이 대학 병원은 알 만수르(Al Mansur) 병원, 알 킨디(Al Kindi)병원과 더불어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받도록 지정되어 준비를 한 세 개의 치료기관 중 하나이다. 미국인들이 포함된 많은 외국인 의사들과 외과의사들이 전쟁상황에 이들 종합병원에서 봉사하기위해 바그다드에 있었다. 환자중 하나는 일반적 마취아래서 수술을 막 받고 나온 25살의 라합

웨다드 모함마드(Rahab Wedad Mohammad)였다. 그녀의 오른쪽 뺨은 부어올라 있었고 오른쪽 팔뚝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병원의 여성 병동의 한 여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막 수술을 한 힘줄과, 신경 그리고 혈관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 의하면, 라합은 폭탄이 근처에 떨어질 때 하이 자미야(Hayy Jamiya) 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집에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폭격이 시작된지 3일째가 되는 토요일 저녁이었고, 그녀는 오른쪽 팔의 힘줄을 심하게 상하게 한 파편을 맞았다.
자하 세헤일(Zaha Seheil)은 반대편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었다. 그녀는 6살 이다. 의사는 그녀가 등뒤에 맞아서 척추를 다쳤고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고 말했다.
남성병동에서, 10살의 루술 살림 압바스*(Rusul Salim Abbas)는 가슴과 오른손에 파편을 맞았다. 그때가 폭격이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가장 심한 폭격이 있었던 금요일 저녁이었다. <그가 파편을 맞았을 때 그는 문 근처로 갔었다>고 그의 아버지인 살림(Salim)이 그의 침대의 귀퉁이에 앉아서 말했다.
33살의 살라 메흐디(Salah Mehdi)는 근처에서 미사일이 폭발할 때 아마리야(Amariya)의 주거지역에서 토요일 저녁에 거리를 걷고있었다. <나는 단지 커다란 불덩이를 봤고 의식을 잃었어요>라고 그는 어렵게 말을 했다. 그는 복부와 오른손 그리고 오른쪽 귀에 파편을 맞았다.
다음 침대에는 폭탄이 그들의 집 근처에서 폭발했던 금요일 저녁에 알 쇼르타(Al Shorta)의 주거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12명의 가족 중 하나인 12살난 오마르 알리(Omar' Ali)가 있었다. 거기에는 폭격 첫날 저녁에 부상을 당한 두 아이의 아버지인 57살의 마지드 마흐무드(Majid Mahmoud)도 있었고, 토요일 밤 등과 양쪽 팔과 다리에 부상을 당한 어린 딸의 아버지인 36살의 후세인 자심 플레흐(Hussein Jassim Fleh)도 있었다.
그것들이 미국의 미사일과 폭탄이었거나 혹은 이라크의 대공포가 떨어진 것이었는가? 이들 방문들이 만들어낸 미묘한 병원 분위기와 탄도들의 증거들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때문에 나라 전체에걸쳐 많은 다른 병원들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부상들의 원인이 실제로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려웠다. <파편이 어디에서 나왔건,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강요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부상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들을 촬영하던 이라크 TV 기자가 언급했다.
일행들은 부상자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7월 14일 다리 거리의 서쪽으로 약 두블럭 떨어진 주거지역
3월 22일, 스튜어트 브리싱아(Stewart Vriesinga)와 웨이드 허드슨(Wade Hudson)은 아마르 빈 야시르(Amar Bin Yasir)거리와 자미아(Jamiaa)거리 사이에 있는 7월 14일 다리 거리의 서쪽으로 약 두블럭 떨어진 주거지역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최근의 이 두 거리를 잇는 거리 한복판을 넓게 둘로 나눠버린 2~3미터 깊이의 분화구를 지나갔다. 서쪽방향의 교통난으로 길은 막혀있었다. 그들은 이 분화구 양편으로 조성되어있는 커다란 공원을 보았다. 분화구 주위로 어떤 건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IPT의 주 운전기사인 모하메드(Mohammed)는 정원이 공공 시설이 아니라 그의 아저씨중 한사람 소유인 개인 집에 연결되어있는 개인 정원이라고했다. 자미아 거리 한쪽 귀퉁이에 그 분화구를 만들어낸 폭탄의 폭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유리창들이 깨진 많은 작은 집들이 있었다. 비록 이 사고로 심각한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거나 민간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일부 폭탄이 의도되었던 목표물에 맞지 않거나 비 군사적 목표물을 향하는게 재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상 복합지역
3월 22일 에이프릴 헐레이(April Hurley), 제히라 하우파니(Zehira Houfani) 그리고 로버트 투르콧(Robert Turcotte)은 주상 복합지구 전체 블록의 거의 모든 창문들이 깨져 나가있는 것을 보았다.

부록 9. 배상현 씨 국적포기에 대한 성명서 2003/04/01

[배상현 팀원 성명서]

국적포기 논란에 대한 저의 입장

저는 이라크 현지에서 이 전쟁이 얼마나 더러운 전쟁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들이 수시로 폭격을 당해 죽고 부상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진하게 뛰어 놀 어린이가 척추에 파편을 맞아 하체가 마비된 모습, 부모를 잃고 온몸에 파편이 박혀 신음하는 어린이,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잃고 온 몸에 붕대를 감은 부모의 통곡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도저히 오폭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에도 폭탄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되는 것을 보고 미국의 야만성에 치를 떨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한 현재의 불리해진 전세를 뒤집기 위해 군사시설과 민간지역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쟁초기 미국은 CNN방송을 통해 후세인이 병원에 숨어 있는 정보가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명분과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여차하면 병원이든 학교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하겠다는 속내를 이미 들어낸 일이 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에 민간인 학살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 더러운 미국의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참담한 비애를 느낍니다.
모든 통신이 거의 마비된 바그다드에서 한국대사관으로 찾아간 저희들을 출입금지 시켜 놓은 우리 외교부, 바그다드에서 우리 조국은 자국민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기에 이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에 분노하고 반대합니다.
저와 현지에 남은 몇몇 사람들은 만일 우리나라에서 파병을 하게 되면 국적을 포기할 생각을 했고 장시간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국내외의 팀원들과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내려진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저의 귀국은 현지 평화팀과 파견단체의 권고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만일 저가 이라크에 재 입국을 하게 되었다면 저는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길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저 또한 파견단체와 평화지원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1일

요르단 암만에서 배상현

부록 10. 임영신, 배상현 씨 국적포기에 관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성명서. 2003/04/03

국적 포기와 관련한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임영신 씨와 배상현 씨의 입장

오늘 오전 10시 30분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임영신 씨와 배상현 씨가 요르단과 이라크에서의 반전평화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 결정을 철회하는 운동과 반전평화를 위한 운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오늘 귀국한 두 사람의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이 이야기한 국적 포기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임영신 씨는 국적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국제법을 어긴 미국과 영국의 전쟁에 한국 또한 파병을 통해 참여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영신 씨의 국적 포기 선언은 UN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전쟁을 도발한 미국, 영국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 협력하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거부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 전쟁이 미국과 영국을 위시하여 국가주의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임영신 씨는 그러한 국가주의는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이며, 그러한 국가주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영신 씨는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적이 사라진 후에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할 것이며, 재외동포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사회의 반전평화 운동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배상현 씨의 경우 자신은 포기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소속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지금 국적포기와 관련하여 소속 단체와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적 포기가 불러올 수 있는 논쟁과 영향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에 국적 포기 관련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는 현재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적 포기 관련 논의가 파병 반대와 전쟁 반대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내에서 국적 포기 관련 의사가 타진된 것은 이번 전쟁과 한국 정부의 파병결정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국적 포기 의사를 존중하며, 이것이 전쟁반대와 파병반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2003. 4. 3.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부록 11. 이라크 전쟁 직 후 현지 의료 상태 조사 보고서 - 임영신 2003/04/14

<1차 의약품 전달을 위한 현지 조사>

2003, 4월 14일-16일, 바그다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의료조사 리포트

1. 의약품 구입 및 전달을 위한 바그다드 의료현황

▶ 4월 14일-16일 1차 조사 결과

바그다드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약탈로 문을 닫은 상태, 약국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진들은 폭격, 약탈과 함께 거의 병원에 나타나지 못했고(교통수단, 통신수단이 전혀없었고 거리에 다니는 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 심지어 병원에서 매일 기자들이 죽는 정도로 기본적인 치안유지가 되지 않았다.) 현재 바그다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간의 병원들은 의사 두세명이 응급실을 운영하든, 전체 병원을 운영하든 발런티어 형태로 의료진을 재편하고 자체 치안을 위해 민병대 혹은 미군의 호위를 받는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사담 시티의 병원들의 경우 어제까지 출입이 되었지만 오늘은 출입을 거절당했고, 심지어 의료진마저, 만수르 병원의 경우 가족들조차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민간인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병원, 약을 전달하거나 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병원은 2-3곳의 공공병원이다. 물론 개인병원을 임대해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이 있는데 병원임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돈을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 전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서 우선 공공병원 중심의 보다 깊은 조사와 연대망을 구성하는 것, 또 같은 병원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국제단체끼리의 정보교환과 공유의 테이블을 현지에서 만드는 것 등이 이곳에서 해야 할 시급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사담 정형외과의 경우 하루 최소 20건 이상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의들이 일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마취제 샘플을 가지고 마취전문의사를 만나 효용여부에 대해 함께 상의했다. 그녀는 지금 현재 이 병원에서는 충분한 의약품이 없어 거의 국부 마취약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간 포폴이라는 전신마취제의 경우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써 본적이 없는 신약이라며 뛸 듯이 기뻐했다. 그들의 의료장비와 수준이 12년의 경제재제 전인 1991년에 멈춰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섯 개의 병원 중 우리가 출입을 하거나 도울 수 있는 병원은 세 개였다. 그러나 사담정형외과를 제외한 나머지 두개의 병원의 경우 응급실과 뇌 관련 환자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취제 및 의약품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치안, 의사들을 위한 교통수단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쉬지 않고 일해온 열명의 의사가 하루에도 5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도운 사담정형외과의 경우, 오늘 내일 중 약품이

떨어지는 현실에 처해있었다. 팔레스타인 호텔 폭격으로 로이터 기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도 이 병원으로 후송되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 의사인 쟈크 역시 그들과 함께 오늘까지도 진료에 참여하고 있었다. 외국인 의사가 진료에 참여할 만큼 투명하게 그들의 활동모습을 공개하고 있었고, 10명 이상의 전문의가 발런티어로 일하고 있는 사담 정형외과에 1차 마취제를 전달하고 그들의 리포트에 따라 추가 의약품을 구매해 전달할 것이 현재 우리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후 한국에서의 추가 의료진 지원, 약품 지원과 관련해 이 병원을 통해 조사, 지원, 전달, 참여, 감사 등을 통해 투명한 약품전달 및 효과평가의 샘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되리라 생각한다. 2차 암만팀에서 수송될 의약품의 경우 16일 오전 2차 취재 및 마취약 전달을 하며 받게 될 그들의 요청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아 의약품을 구매하고 그 의약품을 수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프랑스의 국제의료원조팀의 경우 이미 전쟁 중과 후의 현지조사를 마치고 6톤의 외과수술용 도구들과 의약품을 가지고 비행기로 암만을 향해 떠났다고 한다. 그들 역시 육로를 통해 그 의약품들을 이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암만에 머물고 있는 그 팀과 함께 연대를 하는 것도 이후 의약품 관련 긴급지원과 관련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상진 팀장이 오랫동안 관계하며 함께 일했던 그 단체의 경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연대해 나가는데 중요한 베이스가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 그 단체를 한 번 더 만나고, 저녁 이곳에 와 있는 여러 단체들과 한 번 그들의 계획, 자원, 활동의 결과들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단체들의 현황, 그들의 활동계획 등에 대한 리포트는 내일 아침 암만으로 전송가능할 것이다. 오늘 오전 1차 마취제를 전달 한 후 의료진과의 2차 미팅을 갖고 암만에 필요한 약품 리스트를 위성전화로 전달할 것이다. 현지에서의 의료진 미팅, WHO 미팅 결과를 가지고 보건의료 연대와 함께 의약품을 구입해 이번 금요일 혹은 토요일 정도 이곳에 전달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2. 난민구호 활동을 위한 바그다드 현황 브리핑

▶ 국경택시

이곳에서 암만으로 가는 택시도 1700불 수준, 그곳에서 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비자없이 통과가 가능하지만 프레스 카드, 서약서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 국경을 넘자 마자 미군이 체크를 시작할 뿐 아니라 중간 중간 미군 체크 포인트가 있다. 요르단 국경을 통과할 경우 가능하면 국경부터 바그다드까지 쉬지 않고 오는 것이 좋다. 지난주 이곳에 도착한 강경란 피디의 경우 휴게소에서 KBS팀이 카메라를 빼앗기는 등 약탈을 당하고 그 팀이 도주해, 바트당에 잡혀가 재판을 받고 풀려난 후 도착했다고 한다. 중간에 우리가 머물렀던 휴게소들이 폭격을 당한 상태이며 그곳에서 오래 머물 경우 약탈당할 수 있다고 한다. 기름을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쉬지 않고 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우리가 탔던 국경택시의 경우 1300달러에 오기로 했지만 도착하자 150달러의 기름값을 요구, 지금은 기름값을 별도로 받는다고 주장, 해서 100달러를 주고 돌려보냈다. 미리 기름값 여부를 체크해야 함.

▶ 숙소

알파나 호텔 룸 당 50달러, 쉐라톤 호텔 100달러 함무라비 호텔 등을 50달러 수준에 쓸 수 있지만 치안유지가 안 되는 영역에 있어 KBS, SBS 등의 언론사들은 쉐라톤과 팔레스타인 호텔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있다. 그러나 가격에 상관없이 1천여 명이 넘는 취재진들로 어느 호텔에도 방이 없는 상태 (한겨레도 조성수씨 방에 얹혀있는 상태, 암거래의 경우 쉐라톤 호텔 방 하나에 700달러의 커미션 요구)

▶ 교통

택시를 비롯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알파나의 경우 호텔 앞까지 차가 올 수 있으나 쉐라톤의 경우 불가능, 현재 차량은 하루 100달러 수준(모하메드-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버임에도 불구하고 100달러 이하로는 가격을 조정해 주지 않고 있다.)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알아볼 경우 50달러까지 가능(수하드와 함께 일했던 아띠르가 우리를 위해 50달러 선에서 하루 종일 일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한 상태)

▶ 치안

오늘 아침부터 알파나에서 쉐라톤까지 전신검색 없이 갈 수 없는 상태, 어젯밤부터 밀착 경비에 들어갔다. 어제 있었던 쉐라톤 호텔 앞 총격전의 여파로 추정됨, 그러나 팔레스타인 호텔, 알파나 호텔 등은 여하튼 미군의 경비로 안전한 상태, 때문에 세 호텔에 모든 언론인이 모여 있고, 여전히 평화활동가들은 알파나에 머물고 있다.

▶ 통행

프레스카드가 없이는 미군의 체크포인트를 통과할 수 없다. 국경을 넘어 오는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알파나에서 쉐라톤을 가는 경우도 매번 미군이 수색 및 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하거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프레스 카드가 필요한 상황, 암만에서 만들 수 있으며 사진 세 장, 한국에서 언론이라는 확인 팩스가 필요하다. 인터콘티넨탈 호텔의 프레스 센터에 사진, 팩스와 함께 방문하면 반나절 정도에 나온다. 그 이후 그 프레스 카드에 국경통과를 위한 서약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라크에 들어와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관계로 반드시 암만에서 만들어 와야 한다.

▶ 식량

어제부터 시내에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몇몇 상점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다. 야채가게, 식당, 식료품 점 등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계란, 물, 야채(토마토, 감자, 양파, 고구마, 오렌지, 오이, 당근 등을 구입가능) 시민들의 경우도 집집마다 이미 충분한 식량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소 한 달 이내에 식료품 구입라인이 정상화 되리라는 낙관적 전망으로 식량문제에 대해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

▶ 화폐

들어오기 전 이라크 돈을 전혀 쓸 수 없다고 해 최대한 1달러 짜리를 많이 준비해 왔지만 호텔 이외에서는 달러보다 이라크 돈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이라크 돈 3천 디나르가 1달러 수준, 한 끼 식사는 1달러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조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식사중 총성을 듣는 위험등은 감수해야한다.) 알파나나 팔레스타인 호텔의 경우도 3달러-5달러 수준에서 식사가능, 그러나 부유층이 살던 식당에서 식사를 한 기자들의 경우 4사람이 스파게티를 먹고 무려 50달러를 지불한 경우도 있다.

3. 의료 외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조사

바그다드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은하, 임영신 두 사람의 팀원은 한쪽은 고아원 및 장애아동 시설에 대한 조사, 한 사람은 의료시설 및 의료지원 경로에 대한 조사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틀간 본격적인 리서치에 들어갔다. 의료에 대한 일차 리서치의 결과는 위에 정리된 대로이며 아동관련 리서티는 아래와 같다.

▶ 장애인 수용시설

기범씨나 은하씨가 매일 방문했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MISSIONARY OF CHARITY의 경우, 안정된 운영진, 외부로부터의 재원 등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운영방법을 찾아 이 위기들을 잘 넘어서고 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 유은하씨가 16일 국제활동가들과 같이 방문한나 숙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장애인 시설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관이었고 정부가 마비되자 직원들이 두 달 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아무 의욕이나 계획도 없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은 어떤 돌봄도 없이 마당에 방치된채 심하게 달려드는 파리를 쫓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널부러져 있었고, 이에 대해 선생들은 무심히 자신들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들이 받던 월급은 이라크 돈으로 6천 디나르, 현재의 환율로 약 20달러 수준이다. 11명의 직원들이 80여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들의 월급을 모두 합해도 220불인 것이다. 아이들의 식량 및 운영비를 감안해도 500불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유은하씨의 경우 그곳으로 숙소를 옮기고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및 인수를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이 의료쪽만을 지원할 것인지 유은하씨의 경우처럼 좀더 폭넓게 전후의 사각지대,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현지 판단이 필요하다. 내일 그 시설에 한겨레 팀과 함께 다시 한 번 가 볼 예정이며 은하씨가 오늘 하루 더 리서치를 해 그 시설 운영을 위한 정확한 경비, 현재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다. 가능하다면 한국팀이 입국할 때 그 물품들을 가져오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함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비용의 경우 은하씨는 은하씨 개인모금액을 쓰기 원한다. 한겨레 의약품 캠페인 비용으로 2차 의약품 지원을, 반전평화팀에 모금된 금액으로 장애우 시설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1차 리포트를 마치려 한다.

▶ 현지 수급이 필요한 물건

1. 전기밥통, 전기포트 : 통금, 식량사정 등으로 밥을 해먹을 도구가 있는 것이 효과적
2. 쌀, 한국에서 온 반찬들
3. 스포츠 샌들
4. 양초와 랜턴

날씨가 매우 덥고 햇볕, 바람이 너무 강하다. 반드시 썬크림, 모자, 샌들 등을 준비하기 바람 그리고 영어가 안되는 경우 전쟁전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전면적으로 미군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영어가 필수적이다. 적어도 영어가능자와 2인 1조로 움직일 수 있는 비율로 사람이 구성되어야 한다. 현지에서 물품수송 배분 등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없다. 암만에서 이곳까지의 물품 수송을 위한 최소의 인력, 이후 사업을 위한 2차, 3차 리서치를 할 수 있는 2-3명의 인력이 2진으로 들어오는 규모가 적합할 듯하다.

부록 12. 이라크 민중지원사업 계획서 2003/04/29

현지 이라크반전평화팀 계획서

4월 29일
최혁(이라크반전평화팀)

최근 바그다드에 다녀온 뒤에 정리한 상황과 반전평화팀의 진로 등에 관한 글을 보냅니다. 상황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길게 쓰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글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의견이 모아져서 새로운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계획서로 재작성 되어야겠지요. 이 메일을 받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직접 논의의 당사자가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라크 지원 사업에 대한 반전평화팀의 진로 및 향후 사업 계획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 제안

■ 최근 바그다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바그다드 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상황은 전반적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경계와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내 중심가는 물론이고 바그다드의 주변 지역도 조그만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는 등 종전 직후의 혼란은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평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요. 물론 아직 도시가 정상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상점이나 식당들은 문을 열지 않았고, 또 문을 연 곳들도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요.
또한 아직도 곳곳에서 총성이나 폭발음이 간간히 들리는 등 개인의 처지나 심정에 따라서는 위험하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시간부터는 미군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통행을 꺼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라크 민중을 위한 조사나 지원 활동을 벌이는데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내의 교통 상황도 아직 전반적으로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통을 통제할 경찰이 없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동네 청소년들이 교통 정리를 하기도 하고, 시내 중심가의 주요 도로에서는 차들이 서로 엉키는 일들이 매번 반복되는 등 매우 복잡한 모습이지요. 또한 외국인들의 경우는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는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서는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외 언론이나 개인들의 고의적 혹은 미필적인 바그다드 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약탈이나 간헐적인 전투와 같이 신변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으며, 하루가 다르게 바그다드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라크 민중 지원과 관련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문제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황 인식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령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우리 팀과 보건의료연합에서 파견한 의료지원팀이 함께 의약품을 전달한 병원 3곳은 모두 대형 병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국제 기구 등의 의약품 지원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 우리 팀이 상황을 접했을 때처럼 매우 다급한 모습을 찾기는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한 것이 잘못이라거나 혹은 의약품이 풍족하다는 걸 뜻하는게 절대 아니지요.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지만, 현지인들의 말을 빌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듯 한데, 무엇보다도 큰 병원들임에도 실제로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일반인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무척 열악한 교통 상황이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지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전쟁 전에는 무료 진료하던 곳들이 전쟁 후에는 모두 돈을 받고 치료하기 때문에 빈곤한 이라크 사람들은 긴급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게다가, 정말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지원된 의약품들을 착복해서 팔아 넘기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시내 주변에서 벗어난 지역의 의료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주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인데, 이곳은 전쟁 전부터도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인데 전쟁 이후 상황이 더욱 열악해진거지요. 지금 이런 지역에서는 폭격 등에 의한 직접적인 부상 환자들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 전반적인 보건 환경이 더 열악해지면서 생긴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한 지역의 경우는 상하수도가 섞이면서 더러워진 물로 인한 배탈, 설사 환자들이 하루에 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는 우리 나라 보건소 같은 것이 하나나 돌밖에-그것도 전문의가 아니라 군의들이 일하고 있는-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약품은 태부족이라는 거죠. 아마도 더 자세히 알아 보아야 하겠지만, 식량이나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생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내 중심가 등 일부 지역이나 대형 병원 그리고 대형 상점만 보면서 "이라크 의료, 식량 상황은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며, 바그다드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빈민 지역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그다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문제를 접근하는 처지에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료지원을, 어떤 사람들은 식량을, 어떤 사람들은 물이나 보건위생환경의 개선 등을 말하곤 하는데, 사실 모두가 다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관심 영역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바그다드, 아니 이라크 전체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빈민지역의 경우는 뭐하나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선의를 가지고 바그다드를 찾는 여러 국내외의 구호 단체들 사이의 협조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상호 정보의 교환과 역할 분담 같은 협조보다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아울러 뒤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현지의 필요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이나 이름 알리기를 위한, 더 심하게 말하면 생색내기 구호 활동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름 있는 국제 단체들은 안전을 이유로 바그다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겨우 들어왔다고 해도 미군 보호가 이루어지는 호텔에서 매일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큰 병원 등에 물건 전달하고 사진 찍는 것으로 할 일을 했다고 생색내고 있지요. 하지만 미군이 신변을 보호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빈민지역에는 조사를 하거나 의약품이나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가겠지요. 이른바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뒤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나서지요.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당장 고통 받고 죽어가는 이라크 사람들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변안전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나 구호 물품의 안전이지요. 정말 허탈한 질문이지만 구호단체들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호 단체들을 위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 현지 한국 반전평화팀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팀은 이미 전쟁 전부터 바그다드에서 반전평화 활동을 전개했고, 종전 후 대략 2주전부터 한겨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에서 파견된 의료지원팀과 함께 긴급 의료 지원 사업을, 그리고 현지 조사 및 여러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히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일과 조

만간 실행할 일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쟁 전부터 의료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빈민 지역에서 진료 활동을 시작하고 의약품을 전달하는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팀은 주로 조사 사업을 진행했고 한국에서 오신 의료지원팀이 진료 활동을 하고 의약품을 전달할 곳을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인구가 대략 150만에 이르는 뉴바그다드라는 지역의 몇 군데 보건센터(병원이 아닙니다.)가 현재 주 대상이며, 또 그 지역을 벗어나서도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곳을 힘이 허락하는 대로 찾고 있습니다. 의료지원팀의 활동이 5월말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원 방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의료진의 파견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필요한 의약품의 전달을 지속하고, 무엇보다도 현지인 의사들에 의한, 그리고 현지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안정된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지요.

다음으로는 쓰레기 청소 사업 입니다. 긴급한 의료지원 사업과 함께 매우 시급한 문제는 빈민지역의 정말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만드는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도 지금은 시내 중심가의 쓰레기들은 장사를 하기 위한 가게 주인들에 의해 치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민지역은 주택 골목마다 공터마다 넘치는 쓰레기로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요. 문제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음식물 등 필요한 것을 줍는 모습을 자주 본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대로 하수도가 파괴되어서 먹는 물이 오염된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현지인에 따르면 청소 회사는 망했다고 합니다. 월급을 못받으니 일을 하지 않고 트럭 같은 장비도 다 녹슬고 있지요. 행정 기관도 마비가 되어서 누가 나서서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고 있지요.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치우는 노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역시 필요한 장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긴급 의료지원 사업에 이어서 쓰레기 청소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바그다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심지어 뉴바그다드 지역도 다 포괄할 수 없는 역량임을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지인들과 함께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서 시작하려고 하지요. 지역은 뉴바그다드에 포함된 의료 지원이 이뤄지는 빈민 지역입니다. 트럭과 장비를 구입하고 현지인들은 인력을 동원해서 함께 청소하는 거지요. 일단 우리처럼 작은 단체가 시작하면 많은 외국 단체들이나 현지인들도 동참할 것이라 믿고 작게나마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장애아를 비롯한 어린이 지원 사업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유은하 팀원은 장애아 보육 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바그다드의 장애아 및 고아원 등 아동 복지 상황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들임은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팀은 주된 이라크 민중 지원 활동의 하나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의료와 청소 등 긴급한 지원 활동 때문에 재정 등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또 이 문제 역시 정확히 책임질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주로 빈민지역의 아동과 장애아(아마도 바그다드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하나 내지는 둘밖에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쟁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폐교 상태로써 이라크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쓰레기 더미 위에서 뛰놀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빈민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과 의료 지원, 그리고 해 맑은 웃음을 상실한 그들에게 다시 웃음을 전할 수 있는 이라크 어린이 지원 사업이 정말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이상 언급한 몇 가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 사업과 더불어 우리 팀에서는 또 다른 여러 사업들이 개인이나 팀 차원에서 구상 중이거나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전평화운동의 연장에서

전쟁범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외국의 평화운동 단체들과 연대해서 진행하는 사업, 이라크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비롯한 필요 물품을 보내려는 국내 여성단체의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폭격이나 폭탄으로 실족한 사람들을 위한 의족 보내기 운동, 전쟁을 고발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이라크의 시민사회 형성에 도움을 주는 평화학교 설립 등이 그것들이죠. 하지만 당장은 인력과 재정을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긴급 지원 활동으로 모으기로 했으며, 무리하지 않고 여력이 되는 대로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대강 말씀 드린 내용들은 다시 한번 바그다드와 국내에 있는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로 최종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향후 반전평화팀의 진로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모여서 이뤄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진로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반전평화팀은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 반대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반전평화 활동을 수행했던 한시적인 반전평화팀은 이제 소명을 다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반전평화운동을 그만 하자는 것으로 들어서는 안되겠지요. 적어도 이라크 전쟁 반대 사업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 반영이라도 하듯 지금 국내 지원연대도 많은 분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의지나 결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안이 사라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자기를 희생하는 고귀한 노력으로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에 커다란 물줄기를 만들어낸 반전평화팀은 이제 다음 단계의 더 큰 반전평화운동의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 소임을 말끔하게 끝내야 하는 거지요. 저는 그 마무리를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해소 선언과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팀을 새로 만들어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아름다운 마무리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민을 해보길 바라고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주력 단체나 개인이 떠난 마당에 이름만 지속하는 것도 우습다고 보고, 5월 3일 콘서트를 깃점으로 성명서 등을 내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기구나 팀을 구성하면 된다고 봅니다.

반전평화팀을 해소하고 새로운 팀을 만들자는 게 물론 완전한 단절이나 완전한 새출발을 뜻하는 건 아니겠지요. 사실 저는 반전평화팀이라는 이름과 성과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요. 개인이건 단체건 자기 능력만큼 그 성과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전평화팀의 다음 단계를 어떤 상시적인 평화운동 단체나 뭘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전평화팀의 해소와 동시에 이라크 민중 지원을 위한 새로운 팀 내지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반전평화팀의 관점을 견지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개인이건 단체건) 다음 단계의 더 항시적이고 안정된 반전평화운동 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한시적인 팀이지요. 물론 이전 팀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도 없고 또 새로운 개인이나 팀원들의 참여를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안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감도 없지 않지만,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은 기존 반전평화팀의 마무리 사업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팀의 구성과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라크 민중 지원(팀) 사업의 기본 관점과 원칙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은 반전평화의 관점에서 부당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라크 민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반전평화팀과 다르게 반전캠페인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호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해야겠지요. 다른 구호 단체들과 다른 첫 번째 지점이 바로 반전평화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몰려드는 구호 단체 대부분이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호 활동은 사실상 미국과 영국의 침략 전쟁을 사후적으로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기만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에는 우리처럼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했고 그 연장에서 이라크 민중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려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단체들과 비교하면 역량이 절대 부족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오도된 상황이 일관된 반전평화의 관점에서 지원활동의 전범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작은 노력의 축적이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점 내지 원칙은 바로 "이라크민중의 삶의 재건은 이라크 민중 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만적인 구호 단체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비롯한 반전평화에 공감하는 구호 단체들도 무의식적으로 쉽게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그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무관하게 이라크 민중 구호나 지원 사업을 역시 시혜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지원 사업에서 현지인들의 판단과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반전평화운동 과정에서도 많이 느낀 건데 이라크의 평화를 지키러 왔다는 말만큼 저를 부끄럽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라크의 평화는 이미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라크의 재건도 우리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왔고 살아야 하는 이라크인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고 경험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요.
최근 경험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합니다. 가령 외국에서 모아진 돈들은 이라크 민중을 위해서 모여진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질 지는 당사자들인 이라크 민중이 결정해야지요. 그런데 현지인들의 판단이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돈이 쓰여질 곳이 이미 정해져서 들어 옵니다. 정말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는 지 어떤 지 잘 모르고 일단 쓰는 거지요. 정말 그러면 안됩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쟁으로 상처 입고 고통 받는 이라크 민중이 이런 저런 구호 단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은 결코 동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로써, 그리고 이라크 민중과 똑 같은 세계 시민의 하나로써 자신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그들을 아무런 사심이나 조건 없이 돕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와 파트너쉽을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죠. 선의만 가지고 처리하기에 힘든 일이 많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들이 이라크 재건 사업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 일을 잘 해낼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 팀이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거나 구상하는 사업들은 부족하나마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토론해서 함께 합의한 일들이죠.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지원 활동과 관련한 모든 물품이나 인력도 최대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을 이라크 지원 사업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은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들여와야겠지만 가능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분명히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 민중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서 국제기구나 정부,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앞세우는 기구나 단체와는 연대하거나 기금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서 제안한 반전평화의 관점, 그리고 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민중 자신의 사업이라는 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이라크 구호에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돈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며, 또한 전쟁 전에 미국의 침략전쟁을 미화한 왜곡 보도를 일삼은 언론이 모은 기금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떡 줄 놈은 생각도 없겠지만요. 그런 돈들은 모두 특정한 의도와 조건이 있는 불결한 돈입니다. 물론 많은 돈과 물자가 있으면 좋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원칙은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지요.

4. 구체적인 이라크 민중 지원 활동 계획과 관련하여

이런 기본 관점과 원칙에 동의한다면, 여기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이라크 민중 지원팀 내지는 기구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적은 단체가 모이더라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작더라도 제대로 하면 나중에 커질 테니까요. 간단히 기본 활동 계획을 말씀 드리면,

첫째, 이라크 민중 속으로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겉으로만 그럴 듯 하게 보이는 데 가서 물건 전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큰 길가의 모습이 이라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큰 길가에서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의 가정과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의료지원팀과 함께 하고 있는 진료 사업처럼 가능한 깊숙이 이라크 사람들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한 이라크 혹은 바그다드 지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바그다드에서도 가능한 빈민지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공동체와 결합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실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현재의 역량을 감안해서 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뉴바그다드가 좋다고 봅니다. 이미 의료 지원 사업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와 관계도 맺어졌습니다. 청소나 어린이, 여성 지원 사업도 우선 뉴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향후 우리의 활동에 공감하는 단체나 개인이 늘면 지역도 하나 둘씩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바그다드와 함께 바스라와 같은 이라크 남부 지역의 한 곳에서 지원 사업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이에 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둘째, 지원 사업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라크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수년 혹은 평생을 사실 분도 계실 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돌아가서 평생을 봉사할 곳이 있지요. 따라서 벌린 일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시작과 함께 끝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인 이라크의 재건은 이라크 민중이 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저는 일단 6개월을 제안하고 싶습니다.(재정 등의 이유로 무리라면 3개월도 좋고요. 하지만 최소 3개월은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올해 말까지죠. 물론 이라크 민중 지원팀의 사업으로 말입니다. 만약 한시적인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의 과정에서 상시적인 평화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새로운 주체들이 나타나서 더 지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단계의 문제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팀이나 사업은 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체로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의 규모를 정할 수 있죠. 제 경험에 따르면 실속 있게 현지에서 구호나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경우 이렇게 일을 하더군요. 특정 지역, 대상, 사업, 시기를 정해서 재정과 인력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업을 기획하고 전개하고 뭐 그런 식으로요.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사업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서 대강 말씀 드렸듯이, 물론 이는 현지인들과 더욱 긴밀

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크게 보면 1. 의료지원 사업 2. 청소 등 보건환경 개선 사업 3. 어린이 지원 사업, 기타 여성 지원 및 지역의 생활공동체 사업입니다. 의료 지원이나 보건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6개월 시간을 둔다면 시기별 계획이 더 상세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 시간을 두고 주력 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라크 어린이 지원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전쟁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이고 또 이라크를 비롯한 인류의 미래니까요. 할 일은 무척 많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 드리지만 현지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을 정하는 게 다른 사업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지요.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한정 벌리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추가로 검토했으면 하는 것은 전쟁 범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팀원 가운데 전담자를 두고 국내외 평화운동단체나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팀의 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재정 모금에 대해서

이상에서 언급한 제한된 사업을 그나마 하기 위해서 재정이 매우 긴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물적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면, 우선 이라크 민중 지원팀을 새로 만들면서 기본 재정을 모았으면 합니다. 참가하는 단체나 개인이 기금을 분담해서 내야겠지요. 재정은 대충 설정되는 사업에 따른 예산 규모를 편성해서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만간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중적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도 역시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지요. 아울러 이미 진행되고 사업에 들어간 한겨레 캠페인과는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바그다드에서는 한겨레 캠페인을 매개로 우리 팀과 보건의료 지원팀이 공동으로 긴급 의료 지원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 의료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5월말 이후에는 캠페인 기금을 우리 팀이 계획하는 이라크 어린이 지원 사업 재정으로 쓰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약간의 오해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모두 잘 처리되어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자체로 모은 기금이 아닌 외부의 기금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저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정부나 반전평화운동을 왜곡한 언론이 조성한 기금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앞세우는 기금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를 믿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단체들과 최대한 대화를 해서 도와주고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을 모은 곳의 기금 사용에 관한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과의 협의와 논의에 따른 현지인들이 주도하는 판단과 결정이 더 우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라크 민중과 협의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는 돈이 모였으면 하는 거지요. 솔직히 재정은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라크 민중 지원 기구 구성 및 체계, 그리고 현지 필요 인력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부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물론 이전 반전평화팀 사업에 대한 여러 경험으로 팀이라는 형식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팀은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경험이 새로운 이라크 민중 지

원 사업에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되는 팀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분명한 기준에 따른 팀원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라크 민중 지원팀은 이라크 민중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을 하는 기구지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잘 하기 위한 집행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지에 가서 스탭이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정한 기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씩 말씀 드리면, 우선 일정한 기구의 체계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장과 같은 일정한 의사의 결정과 집행 체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공신력도 높아집니다. 불가피하게 서울과 바그다드로 분산되어 존재해야지만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과 바그다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암만은 두면 좋지만 지금 역량 상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방도는 만들 예정입니다.
현지 스탭이나 자원봉사자는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활동 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에 따라서 정해진 숫자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오셔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하지만 스탭이나 자원봉사자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팀의 활동을 하는 거지요. 이 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탭의 경우는 모든 경비를 팀에서 지불하지만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현지 생활비를 제외한 여행 경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는 현지에 넘쳐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대략 활동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적어도 공개 모집을 거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탭의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보내야겠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강의 구상이 합의되고 의견이 교환된 이후에 말했으면 합니다.

■ 필요 물품에 대해서

....

최종적인 결론과 함께 이후 사업의 모양이 정해지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여러 분들과 사전에 여러 차례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의 제안들은 현지에 남아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잘 모아져서 좋은 결론이 내려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만간 다시 메일 보내겠습니다.

부록 13. 해소 회의안(분량 상 삭제 : 편집자주)

부록 14.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마무리 행사 안내장 2003/08/23

부록 15.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현지 성명서 2003/09/25
[이라크에서 보내는 저의 개인적 생각과 이곳의 여론들]

한국전투병의이라크파병을반대합니다.

얼마 전 이라크에 한국 전투병 파병을 원한다는 미국의 요청에 관한 외신 보도를 인터넷 통해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우연찮게 이라크에서 한국 전투병 파병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간과하기 힘든 국제적 이슈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이라크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라크에 적지 않은 전투병을

보내려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면 나는 굉장히 분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죽일 지도 모른다. 미군처럼' 내가 질문을 했었던 이라크 친구들이 현재 미군과, 미군과 연관된 여러 다국적 군을 테러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지내다 보면 이 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군을 믿지 않고 싫어하고 분노해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나고 접하는 대부분의 이라키(이라크 민중)들은 비슷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카페에 가서 한국의 여론이 어떤지 궁금해서 한 사이트에 방문해서 여러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느낌이 참담했습니다. 마치 실리와 명분의 두 갈래로 나누어져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곳에는 실상 이라크 국민들은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이 곳에서는 미군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쟁 중에 사망한 미군보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망한 미군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마 8월 말부터 9월 초순을 기점으로 이 곳의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라키들이 어느 정도 미군에게 시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의 상황들은 나아진 것은 없고 자신들의 눈 앞에서 자신의 동포가 죽어나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접하다 보니 그들의 머리 속에 미군이, 미국이 어떠한 존재인지 윤곽이 잡혀 나가는 듯 합니다.

얼마 전 이곳의 한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임산부는 자신의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고 차가 없었던 남편은 자기의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도움을 요청 받았던 친구는 자신의 차를 끌고 바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급하게 차를 몰고 가는 차를 보고서는 알리바바로 오인하고서는 무자비하게 사격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남편의 친구, 임산부, 그리고 임산부 배 속에 있었던 아이, 4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 사고가 있었던 다음 날에는 결혼식 축하를 위한 공중 사격(이 곳의 결혼식에 참가하다 보면 대부분의 신랑 친구들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신랑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들여올 때, 그리고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공중에 대고 총을 발사한다.)에 놀란 미군이 결혼식 차량에 대해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수 명의 이라키들이 사망했고 그 중 한 명은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의 사망에 관한 소식은 여타의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지만 미군의 사망 때문에 그 수 배가 죽어가는 이라키에 관한 소식은 몇 개의 소수 이라크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곳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매일 접하고 있는 이라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과 미군에 대한 분노는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분노는 특정한 테러 집단에게 한정되지 않고 대 다수의 이라크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많은 시간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이 만들었던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노우 아메리카 노우 사담, 예스 코리아' 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있는 한국의 반전 평화팀과 한국 코리아라는 대상이 동일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겠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또한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음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너희들의 나라에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에 동조해서 자신들의 국익 때문에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임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가끔 '노우 아메리카, 노우 사담, 노우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눈빛을 띠면서 '노노노! 예스 코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에 마주하면서 만약 한국에서 대규모 전투병을 이라크에 파병하면 고백을 해야겠지요. '미안하다. 얘들아. 한국 정부는 너희의 고통과 피를 국익으로 판단하고 미국과 똑 같은 행동은 저질렀단다. 미안하다.'

제가 활동했던 한국 반전평화팀, 그리고 보건의료연합에서 파견했던 팀, 그리고 천주교평화네트워크 팀, 그리고 작고 큰 많은 한국의 엔지오들 덕분에 저는 이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들의 활동 덕분에 한국에 관한 이미지는 이 곳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할 때 도와주었던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엔테 코리? 지엔! (you are Korean? Good!)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매일 제가 거주하는 바그다드 내 알 마시텔 병원(그 안에 공부방 겸 놀이방이 있어요)에 가면 나를 알고 있는 여러 이라키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느 집에 식량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 어느 집에는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수술을 받지 못해서 너무도 힘들다. 네가 도와주었으면 한다.'라도 여러 부탁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현 상황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닌지라 그저 '그러세요. 나아져야 할 텐데요. 좋아져야 할 텐데요.' 라는 말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곳의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을 가지고 오는 전투병은

절대 아닙니다.

깍 일 대로 깍 인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 마저 짓밟는 전투병은 이 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만든 미군에 대한 증오심이 그대로 또 다른 나라의 전투병에게 옮겨갈 뿐입니다.

이 곳의 상황은 그 들의 문화와 상황을 인정해 주면서 자신들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바랄 뿐입니다. 나는 가끔 전시용으로 이라크에 와서 생색내기 식으로 도움을 주고 가는 일부 엔지오의 행동에 눈살을 찌뿌리게 됩니다. 하다 못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엔지오도 이 곳에서는 반감을 줄 수 있어 얼마 전에 이라크 유엔 본부에 두 번의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미군의 또 다른 대체 존재일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전투병이라니……

한국의 전투병 무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들이 오면 돌아가는 그 날까지 분노한 이라크 민중의 공격에서 잘 피하고 버티다가 귀국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의 의무일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미군들처럼

분명 이 곳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른 전투병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곳의 현지 사정은 그러합니다. 이 곳의 대 부분의 사람들은 이라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분노해 하고 있고 전쟁이 끝난 이 후 지금까지 별다르게 달라지고 있지 않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원망을 미국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의 한국의 소식은 악몽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나와 접하는 모든 이라키들이 싫어하는 일을 자신의 국익이라고 박박 우기는 한국, 한국의 국적을 가진 나, 하루빨리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이 곳의 아이들에게, 민중들에게 총부리로 무장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한 전투병 무리가 아닌 따스한 눈빛을 가지고, 전쟁으로 상처 받은 이들의 가슴에 평화의 이름을 전달해줄 한국인들이 필요합니다.

9월 25일 바그다드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이동화

부록 16.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이라크인들의 편지 2003/10

1. 살람의 편지

To the people of korea

salam. h. gadhban (살람)

Peace upon you
I know you are feeling with this argument which focuses on this subject of sending korean solders to iraq
to support the operations of peace keeping and keeping the safe as the spoks man of both american and korean government said,
because i am iraqi citizin, basically interesting, that my country live in a complet peace.
I would like to write this for you as follows...
We have been suffering enough and he bloods drooped from us it full (coverd) the earth
What our charge to live in peace only?

We gonna live in peace.
could you help us for that?
Because I heared that your government intend to offer a support to iraqi people to live in peace, but what kind of peace you mean.
If it was the same which america brought it, so i will tell you, you are not welcomed and i like to say to every human being in korea, he could be one of those soldiers.
Is it the best for you to put your hand above iraqi child who has los this parents or on of them in the war which he is not responsable for it,
or you w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iraqi children whom they live without their fathers or mothers
is it for humanitarian kiss front of a child who lost his own arm or his own leg concern in american war
or american humanity orders you to hold a weapon against iraqi child face.
We want to play as the children in all over the world,
you wont to terrify a pregnant woman to fail her pregnancy.
At the last tell me did you heared about this world at large.
Is there a peace making by force? I am asking you because you are the korean soldier. you will be in iraq under this name.
Did you know that or not?
and if their is a peace by force, so, where it is and when had happend ----------
I know well that you hold inside your bodies hearts as other people and if any one wants to live and when is living with a heart his heart must be beating.
I do not believe that he will be in the rank of people who making the crimes and blood as a hobbies in their life and a proffission gain from it their life, so fuck to them.

10월 7일 이라크 바그다드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국군을 이라크에 보내는 문제에 관한 논쟁에서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군대를 보내는 일이 평화를 만들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라크 사람이기 때문에 이라크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고통받았고 세계를 덮을 만큼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이 단지 평화롭게 살기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국정부가 이라크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무언지 궁금할 따름입

니다.
만약 그것이 미국이 이라크에 가져온 것과 같은 평화라면, 한국군들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군 또한 아래와 같은 군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쟁의 책임이 없는 아이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옭아매는 것이 당신에게는 최선의 길입니까?
혹은 부모 없이 살아야 하는 이라크 아이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가요?
이것이 미국에 의한 전쟁으로 인해 팔 혹은 다리를 잃은 아이 앞에 대한 인간적인 입맞춤입니까?
'미국의 인권'은 당신들에게 이라크 아이들을 향해 무기를 돌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또한 세계의 다른 어린이들처럼 뛰어 놀고 싶습니다.
당신은 임신한 여자가 출산할 수 없도록 위협하고자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라크의 상황에 대해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십시오.
나는 한국의 군인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이라크에 올 것을 알기에,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존재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만약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몸 속에 심장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살아남길 원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요동치는 그런 심장 말입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죄악을 짓고 피를 보는 것을 취미로 삼는 무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2. 쉐이마 편지

(원문 그대로 옮김)
TO korea people

"IN THE NAME OF GOD"

I am iraqi citizen, I want to thanksful south korea people and government about many thing doing for my country "supported iraqi family and children....etc" their feeling to do more and more.

I would like to tell you "all iraqi people, they want, needed peace, freedom, security, safe....etc", but without any interfering of foreign solider from your country or other.

we can protect our country and do anything for that.

stop spirits killing for nothing. the foreign soliders are victim of subversive criminals

if you want to protect my country or provide, you are supporting by rebuilding.....etc. and "take south korea citizen voice with iraqi people voice" prevent any solider of foreign country interferance and all army in iraq of other government leaving this place.

at last we need peace, please

stop the war

shayma'a hashim
03/oct/9th